

# 농산촌 마을홈페이지 경관사진앨범 분석

## Analysis on Landscape Photographic Album in the Webpages of Agriculture and Mountain Villages

이덕재\*, 전준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 I. 연구배경 및 목적

흔히 마을의 경관은 그 마을이 지닌 정체성을 드러낸다. 마을 주민의 생산활동의 경관, 생활영역의 경관, 자연환경의 경관 등이 어우러져 마을의 모습이 나타난다. 관광연구에 있어서도 관광의 목적지로서 마을을 표현하는 이미지 연구를 정의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다. 한편 사진은 여행을 하면서 향유하는 즐거움, 프로그램, 경험 등의 증거를 제공하며, 기록하는 기능을 하며, 현대 관광은 이러한 사진 이미지에 의존적이어서 관광 책자와 여타 마케팅 도구로 사용한다. 따라서 관광경험의 만족은 관광 책자나 엽서에 담긴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진을 집으로 갖고 돌아오는 관광객에 의하여 측정가능하기도 하다. 사진은 흥미 있던 관광경험을 영속적으로 보전하고 공유하는 수단인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산촌개발마을과 농촌체험마을 사이에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앨범 상에서 체험활동의 공간이 되는 경관사진이 산촌과 농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밝히고, 향후 산촌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사진앨범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농산촌 마을홈페이지의 조사대상은 마을 및 농가 단위의 홈페이지로서 산촌개발마을이면서 산림청 포털사이트 “숲에ON” 상에 표시된 산촌 중 여타 마을개발사업이 투입되어 마을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의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경기도 부래미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경기도 자채방아마을)을 선정하였다(표 1).

분석방법으로서의 내용분석은 전통적으로 저널의 기사 혹은 영상매체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가상공간 상의 광고매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농산촌 방문시 체험활동의 주

체와 체험공간별 경관이 산촌과 농촌의 각 마을홈페이지 사진앨범 상에서 얼마나 많이 업로드되어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양적으로 비교하였다.

표 1. 조사대상 마을홈페이지

구분	대상 마을	URL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강원 대기2리 충북 괴산조령산 체험마을	http://daegiri.invil.org/ http://one.invil.org/
산촌마을+ 농촌체험마을	강원 어성전리 탁장사마을 경기 신론리	http://takjangsa.go2vil.org/ http://www.sinnon.net/
농촌체험마을	경기 부래미마을 경기 자채방아마을	http://www.buraemi.com/ http://banga.go2vil.org/

### III. 연구결과 및 토의

#### 1. 농산촌 체험활동 주체

농산촌 마을홈페이지의 사진 속에 체험의 주체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인, 어린이, 혹은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나타난 사진의 빈도를 확인하였다(표 2).

표 2. 농산촌 체험활동 주체

구분	산촌마을+정보화마을				산촌마을+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대기리		조령산		탁장사		신론리		부래미		자채방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어린이	55	10.4	221	21.5	18	26.5	3	10.3	218	11.1	295	<b>39.3</b>
성인	356	<b>67.7</b>	405	<b>39.0</b>	23	<b>33.8</b>	4	13.8	647	<b>33.0</b>	114	15.2
어린이+ 성인	84	16.0	305	29.6	20	29.4	18	<b>62.1</b>	483	24.6	260	34.7
구별 불가	31	5.9	99	9.6	7	10.3	4	13.8	613	31.3	81	10.8
합계	526	100.0	1030	100.0	68	100.0	29	100.0	1961	100.0	750	100.0

대체로 산촌과 농촌의 구분 없이 성인이 체험활동의 주체로서 사진 속에 나타나 있으나,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투입된 신론리, 자채방아마을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체험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 성인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산촌의 경우에도 성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행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산촌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체험공간별 경관영역

농산촌 체험활동의 배경이 되는 경관이 각 마을형태 별로 업로드 사진의 빈도를 통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농산촌 체험공간을 경관유형별로 분류하였다(표 3). 농산촌 체험공간은 크게 산촌배경과 관련 깊은 산, 하천 등의 자연환경경관과 농촌배경과 관련되는 논, 밭 등 농업생산경관, 그리고 중립적인 주택, 공공시설 등 농산촌생활경관으로 구분된다.

표 3. 농산촌 공간별 경관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환경경관	녹지경관	산, 생태계
	수변경관	하천, 호수, 바다
농업생산경관	농지경관	논, 밭, 목초지, 과수원, 마을숲, 수목
	농업시설경관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저수지, 농업시설
농산촌생활경관	생활시설경관	주택, 공공시설, 상점, 도농교류 시설, 공장, 도로, 안내시설
	문화역사경관	사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분석의 결과, 대체로 주택이나 공동시설과 같은 생활시설경관 혹은 문화역사경관으로 분류되는 농산촌생활경관 속에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이는 체험활동의 공간이 농산촌의 생활경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역시 산촌과 농촌의 구분 없이 논과 밭 등 농업생산경관에서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산촌개발마을이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투입된 신론리만이 자연환경경관이 많이 나타났으나, 다른 마을들에 비하여 업로드된 사진의 양이 적었다. 한편 대기리 마을의 경우에는 체험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혹은 야간에 행해진 경우가 많은 관계로 경관의 구별이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산촌에서의 체험활동이 차별화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의 공간이 야외의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체험공간별 경관영역

구분	산촌마을 + 정보화마을				산촌마을 +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대기리		조령산		탁장사		신론리		부래미		자채방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연환경경관	26	4.9	121	11.7	4	5.9	8	<b>27.6</b>	101	5.2	109	14.5
농업생산경관	71	13.5	76	7.4	14	20.6	2	6.9	553	28.2	203	27.1
농산촌생활경관	59	11.2	526	<b>51.1</b>	17	<b>25.0</b>	8	<b>27.6</b>	661	<b>33.7</b>	125	16.7
자연환경+ 생산경관	19	3.6	3	0.3	5	7.4	3	10.3	57	2.9	37	4.9
자연환경+ 생활경관	5	1.0	91	8.8	10	14.7	4	13.8	31	1.6	14	1.9
생산경관+ 생활경관	68	12.9	143	13.9	13	19.1	4	13.8	539	27.5	216	<b>28.8</b>
구별불가	278	<b>52.9</b>	70	6.8	5	7.4	0	0.0	19	1.0	46	6.1
합계	526	100.0	1030	100.0	68	100.0	29	100.0	1961	100.0	750	100.0

요약하면, 조사대상 마을 중 산촌의 경우에 산촌의 풍부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체험공간으로서의 마을 정체성 의미가 홈페이지 상에 시각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농촌체험마을과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산촌의 경관자원을 특성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홍보·공유하기 위하여 마을홈페이지 상에 산촌의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전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관광정보가 산촌체험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촌다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